

祝辭

2016. 4. 19(화) 14:00~16:00
광화문 KT 드림홀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먼저 제8차 「핀테크 Demo day」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정유신 센터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Bill Paterson(빌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님,
Alex Scandurra(알렉스 스캔드라) **Stone&Chalk** 대표님,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해외진출과 문화융성을 위한 MOU 체결

오늘 「핀테크 Demo day」에는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호주의 대표적인 핀테크 육성기관인
Stone&Chalk*와 핀테크 지원센터가
“핀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 '15.8월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호주의 대표적인 핀테크 육성기관

작년 영국에 이어 이번 호주와의 MOU를 통해
핀테크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이
“문화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오늘 MOU는 얼마 전 금융위와 문화부가 체결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금융지원 MOU”의 후속조치입니다.

지난 MOU를 통해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강화 등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유관 기관간 MOU를 통해
문화 콘텐츠 가치평가 등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융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II.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오늘 핀테크 데모데이 주제는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입니다.

두 산업은 다른 듯 하지만 공통점이 많습니다.

핀테크는 IT와 금융이 결합된 융합 산업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스토리와 영상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융합 산업입니다.

또한 핀테크와 문화 콘텐츠 산업 모두
잘 만들어 놓으면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화제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的
경제적 효과가 총 3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잘 만든 문화 콘텐츠 하나가 중형 차 6만여대를
수출한 것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 콘텐츠 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수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21세기 연금술”이라 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 또한 정부가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
글로벌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新성장동력**입니다.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두 산업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오늘 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행사에서는 **크라우드펀딩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와 문화예술의 융합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를 판단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금회수 기간도 짧아 크라우드펀딩에 적합한 분야입니다.

최근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이
7일만에 완료되어 자금 모집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효과도 누렸다고 하니**
문화 콘텐츠와 펀테크의 홀륭한 결합사례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예금 이자를 문화 콘텐츠 결제가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향후에는 문화 콘텐츠가 가진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문화 콘텐츠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업은행은 “**문화콘텐츠 특화 기업투자정보마당**”,
“**크라우드 펀딩 마중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V. 맷음말

여러분!

금융위원회는 금년도 핵심과제 중 하나로
“**핀테크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핀테크 한류**”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문화 콘텐츠 산업 관계자 여러분이야말로
한류의 원조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펁테크와의 융합,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뻗어나간 길을
핀테크 산업이 뒤따라 세계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일 이 행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두 날개가 함께 펼쳐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